

올해의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삼청가 중 타루비' 대목 열창 정보권씨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정보권 씨(33)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삼청가 중 타루비' 대목을 열창한 정보권 씨가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8,0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본선대회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장원인 정보권 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는 △농악부 부안군립농악단(국회의장상) △무용 명인부 이유나(국무총리상) △민요 명인부 박영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법 명고부 이우현(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판소리 일반부 최진욱(국가유산청장상) △가야금병창 명인부 고혜수(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고법 일반부 신성재(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공도부 김형진(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가야 명인부 김우성((주)문화방송사장상) △시조부 최연욱(주)문화방송사장상) △무용 일반부 김재권(대회장 전주시장상) △판소리 신인부 최승규(대회장 전주시장상) 등이다.

또한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학생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부 홍가연(교육부장관상) △농악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대신문화재단이사장상) △판악부 박시연(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현악부 강병신(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무용부 천예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법부 임현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민요부 손하은(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가야금명창부 박단아(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시조 초등부 박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판소리초등부(고학년) 이승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판소리초등부(저학년) 노유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학생이 각 부문별 장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제44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와 함께 지난 5월 9일 공도부 대회를 시작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놀이, 한국전통문화전당, 도립국악원, 전주 천안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올해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판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 청중평가단이 운영됐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정보권씨가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으며, 판소리 명창부 본선 진출자 간 공정한 경연 여건 조성을 위한 지정고수제도 운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라한호텔에서는 대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6 전주대사습놀이, 국악인의 밤'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악인과 예술단체, 후원기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를 함께 기념하며 축하공연과 만찬 등의 시간을 함께 즐겼다.

이에 앞서 지난날 21일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대사습놀이 보존·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공동체가 만든 무형문화유산 구축의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또, 지난날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대사습

이 장원자와 명인·명창들이 대거 참여해 △전야제 △장원자의 밤 △70년대 해학창극 △창작의 밤 △팔도 한방 한미당 잔치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등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국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판소리명창부 장원 정보권 씨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 선생님님 생각나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대사습놀이가 수많은 국악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국악 경연대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국악의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신임 강경남 정읍경찰서장 취임

정읍경찰서는 8일 오후 5시 경찰서 내장신홀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7대 강경남 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강경남 경찰서장은 취임사에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경찰 행등으로 보여주는 현장 중심 경찰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 받는 경찰, 인권과 절차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성장하는 정읍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강경남 경찰서장은 충훈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2026 의료 AI 세미나' 성료

전북대학교병원이 미래 의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AI)의 의료 분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8일 병원 교수연구동 CS홀에서 '2026년 의료 인공지능(AI)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혁신미래의료연구센터(센터장 곽명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의료영역에서의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Physical AI와 Agent AI)'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료진과 연구자, 산업계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AI 및 바이오전자기학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미래 의료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 인공지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임상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특히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접목될 경우 진단과 치료는 물론 재활과 환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보건소, '마음헤아림'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제는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마음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판정을 받은 재가암환자와 가족 50여 명이 대상으로, 기간은 1회(6월 10일~18일), 2회(7월 8일~16일)로 나누어 총 8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내용은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검사 및 건강상태 신진체 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체조 및 근력강화운동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공예요법, 원예요법, 색채요법치료요법 등으로 구성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원'

진안군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

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회장 배병선), 바르게살기진안군협의회(김옥봉), 용담호수집개삼주민협의회(회장 김경길), 진안군행정동우회(회장 배병욱), 진안군애호반부 등 관내 20여 개의 사회단체들은 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추가 선정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유치를 하도록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단체는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하며 "진안은 이미 준비를 마친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진안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 지역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5개 내외의 군 단위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수 결과 전국 44개 지자체가 신청해 8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안군은 공모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도 확실히 마련해 왔다.

최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화폐인 '배방카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정책 수당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윈윈시스템을 갖춰 사업 추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지역사회 역시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공모 선정의 담요성을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 서비스 축소 등 농어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사업인 용담댐 건설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희생을 겪었던 것도 이번 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최종 선정을 향한 응원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원해 왔다. 이평중학교 역시 야구부와 축구부를 중심으로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훈련 체계를 갖춘 학교 야구부에서 기량을 닦은 권혁일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은 훌륭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금도 이평중학교 학생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배들의 뒤를 이어 꿈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JB인문학 강좌, 김제 덕암고서 성료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5일 김제덕암고등학교에서 '2026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뚜기 떡볶이'의 김관훈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학생 2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김 대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를 주제로 자신의 학창 시절과 창업 과정, 그리고 브랜드를 성장시키기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했다. 특히 평범한 관심사에서 출발해 전국적인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낸 과정을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성장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은, 원광대병원에 발전기금 5270만원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8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5,27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향후 내원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 이평중 출신 학생선수 2명, 나란히 국가대표 발탁

축구 박상영·야구 권혁일

정읍시 이평면과 이평중학교가 함께 키워낸 권혁일, 박상영 선수가 각각 야구와 축구 종목 국가대표로 연이어 발탁되며 지역사회의 값진 결실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야구 종목의 권혁일 선수는 이평중학교를 지난 2021년에 졸업했다. 이후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현재 목포과학대 학교 2학년에서 재학 중이다. 그는 오는 7월 열리는 2026 세계대학유학생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같은 해 이평중학교를 졸업한 프로축구단 대구FC 소속 골키퍼 박상영 선수도 낭보를 전했다. 최근 21세 이하(U-21)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룰 유망주로 우뚝 섰다.

이 같은 성과는 이평면과 학교가 힘을 모아 추진해 온 체육 인제 육성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이평면은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 희망나눔 학용품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회장 장성태)는 8일 오전 11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덕진구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초등학생 120명에게 학용품 및 물티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된 물품은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인 물티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